
공민왕대 후반 여명관계와 장자온·설사

김 난 옥

(고려대학교 강사)

머리말

I. 공민왕대 대외관계의 추이

II. 張子濫의 명나라 파견 배경과 역할

III. 楔斯의 고려 파견 배경과 역할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367).
- 투고일: 2018. 8. 16. ● 심사일: 2018. 8. 17. ● 게재확정일: 2018. 8. 28.
- <https://doi.org/10.31218/TRKH.2018.09.131.167>

www.kci.go.kr

요약

14세기 후반은 원과 명이 교체되는 격변기로서 고려의 외교정책도 그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민왕 17년부터 19년까지는 麗明關係가 형성되는 시기였으며, 通交 과정에서 고려와 명에서 파견된 최초의 사신인 장자온과 설사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였다. 고려는 공민왕 17년과 18년에 장자온을 명나라에 파견하였는데, 명나라에서 고려로 설사를 파견한 시점도 역시 비슷하였다.

장자온은 공민왕이 폐위되어 곤경에 빠졌던 시기에 在元중인 다른 사람과 함께 덕흥군의 동향을 몰래 고려에 전달하는 데 공을 세우면서 출세하게 되었다. 이후 하남의 실력자인 괴뢰태무르[擴廓帖木兒]에게 사신으로 파견되어 외교사절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장자온은 이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국제환경의 변화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공민왕에 대한 충심과 중국 정세에 밝은 정보력은 명나라가 건국하자마자 장자온을 첫 번째 사신으로 파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장자온이 명나라에서 사신으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명 태조로부터 받았던 前例 없는 환대로 미루어 보아 양국의 국교 수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비록 고려 내에서 장자온은 ‘시정인’으로 평가 절하되었지만, 공민왕의 신임이나 국제 정세의 파악 능력 면에서는 매우 적격인 인물이었다.

설사는 명에서 고려로 처음 파견된 사신으로서,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설사는 설손·설장수를 비롯한 고려 내 설씨 가문의 위상이라는 인적 배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와 장사성의 뜻에서도 관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따라서 설사는 당시 동북아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력을 갖춘 인물로서, 특히 고려 사정을 면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책임자였다.

설사의 使行을 계기로 여명관계는 급속히 진전된 반면, 북원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결과적으로 설사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장자온과 설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인물이었는데, 공민왕대 후반은 고려나 명나라를 막론하고 중국과 한반도의 사정에 밝은 ‘국제인’이 사신으로서 적합한 시기였다. 게다가 아직 ‘전형적인’ 양국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와 명나라 모두 대외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려에서는 ‘시정인’ 장자온이 선발될 수 있었으며, 명나라에서는 귀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설사가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주제어 : 공민왕대 대외관계, 원명교체기, 張子溫, 僕斯, 공민왕대 使臣
선발의 배경, 麗明 通交

머리말

공민왕이 재위한 14세기 후반은 중국 대륙의 정세 변동이 극심한 시기였다. 원이 쇠퇴하고 漢人 群雄이 각지에서 일어나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고려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고려는 원의 요구에 의해 張士誠을 토벌하기 위한 南征軍을 파견하였으며, 홍건적의 침입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국왕이 안동으로 피난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1368년 明軍이 大都를 함락하고 원나라 조정이 上都로 옮겨지면서, 공민왕대 후반의 고려는 元·明 두 나라를 상대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몽골 一國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고려의 대외정책은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원명교체기 고려의 대외정책은 ‘親元’·‘親明’의 관점에서 논의되거나, 혹은 ‘양단외교’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은 원명교체기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외교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개별 상황에 대처하는 단기적인 대응양상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 대륙의 형세가 급변하던 공민왕대 후반의 麗明關係는¹⁾ 시기를 좁혀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공민왕대 對明外交에 대해서는 金成俊, 1994, 「고려 말의 정국과 원·명관계」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金惠苑, 1998,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 群雄」 『백산학보』 51; 特木勒, 2000, 「北元与高丽的外交: 1368年~1369年」 『中国边疆史地研究』 2000年 第2期; 박원호, 2005, 「高麗와 朱元璋의 첫 交涉에 관한 小考」 『북방사논총』 3; 정동훈, 2016, 「고려 공민왕대 대중국 사신 인선의 특징」 『동국사학』 60; 譚春阳, 2017, 「明初倭氏家族对中朝关系影响研究—以倭斯·倭長壽为中心—」 延邊大學 碩士學位 論文 등이 참조된다.

고려와 명이 처음으로 외교 교섭을 시작할 때 중국 대륙의 패권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북원이 나름 ‘건재한’ 상황 속에서 고려와 명의 通交는 기존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國交도 수립되기 이전이므로 前例로서의 의례와 절차도 없었다. 더군다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사신 파견은 서로에 대한 일종의 ‘탐색전’이기도 하였으므로,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使臣을 선발하여야 했다. 쌍방의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에 의해 사신의 임무가 부여되고 실행되었겠지만, 麗明 사이에는 미처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와 명에서 처음으로 상대국에 파견한 사신인 張子濫과 俛斯의 使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선발된 배경은 누구보다 자타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민왕 17년부터 19년까지 이루어진 장자온과 설사의 두 차례 使行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사신으로 선발된 배경과 역할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공민왕대 후반 麗明關係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I. 공민왕대 대외관계의 추이

장자온과 설사가 麗明 양국에서 최초로 파견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당시 대외정세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민왕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변동기였다. 중국 각지에서 漢人 群雄이 대두하면서 쇠락하던 원나라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고려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고려가 직접적으로 중국 남부의 한인 정치집단과 맞닥뜨리

게 된 계기는 원나라로부터의 장사성 토벌을 위한 고려 군대의 요청이었다. 공민왕 3년에 원 조정에서는 강경한 태도로 고려에 군사의 징발을 요구하였다.²⁾ 당시 고려는 기근이 들어 유비창의 곡식을 풀어 기민을 구제할 정도로³⁾ 재정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강요에 의해 유탁·염제신 등의 將相이 이끄는 2천의 군사를 지원하였다. 고려에서 출발한 군대와 在元 고려인 2만여명이 합세한 고려의 군대는 원나라 승상 脫脫이 주도한 장사성 토벌에 참여하였다.⁴⁾

하지만 脫脫의 高郵城 공략이 실패한 후 고려의 南征軍은 공민왕 4년에 돌아왔는데, 전투에 참여했던 征南萬戶 權謙 등은 南賊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⁵⁾ 원정에 참여한 將相에 의해 쇠퇴해가는 원나라의 실상이 고스란히 목격되었고, 이러한 형세 변화는 원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공민왕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 기철 일당의 숙청, 정동행성이문소의 혁파, 쌍성이북의 실지 회복 등으로 이어졌다.⁶⁾ 비록 자발적으로 전투에 나선 것은 아니었으나, 고려의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고려와 한인 정치집단과의 교섭 속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장사성과의 교류가 이를 잘 보여준

2) 『高麗史』 권38, 세가 공민왕 3년 秋7月 “癸卯 元遣吏部郎中哈刺那海崇文監少監伯顏帖木兒利用監承林蒙古不花 召柳濯廉梯臣權謙元顯羅英傑印璫金鋪李權康允忠鄭世雲黃裳崔瑩崔雲起李芳實安祐等 及西京水軍三百 且募驍勇 期以八月十日 集燕京 討張土誠 伯顏帖木兒本國人康舜龍”

3) 『고려사』 권80, 식화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恭愍王三年六月 以年饑 發有備倉粟 減價以市民 置賑濟色于演福寺 發有備倉米五百石 糜粥以濟飢民”

4)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3년 秋7月 “癸亥 柳濯廉梯臣等四十餘人 率軍士二千如元 王幸迎賓館 親闕送之 帝所召 皆將相之有名望者 且精兵銳卒 皆從征 宿衛虛弱 王疑懼 募弓手于西海道 以備不虞”

5)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4년 5월 “是月 征南萬戶權謙元顯印璫還自元云 南賊日盛 我軍陷六合城 又移防淮安路”

6) 金成俊, 1994, 「고려 말의 정국과 원·명관계」,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328~329쪽 및 金惠苑, 1998,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51, 78쪽

다. 南征軍이 돌아온 지 2년 만인 공민왕 6년에 江浙省丞相 장사성이 實刺不花를 고려에 파견해 방물을 바친⁷⁾ 이후로 양측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제 고려는 적군으로 맞섰던 장사성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었다.

고려에 사신을 보내기 전해에 장사성은 주원장과의 대결과 元軍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원나라에 투항하여 太尉職을 받았다. 물론 장사성의 투항은 완전한 굴복이 아니라 원 조정과의 일정한 타협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장사성은 여전히 자신의 군대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고우성 전투에서 고려의 戰力을 확인했던 장사성이 고려를 원군으로 하여 주원장 세력과 원나라를 동시에 견제하려고 고려와의 제휴를 시도했을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 조정보다는 주원장 세력의 견제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고 생각된다. 공민왕 7년에 장사성이 고려에 보낸 문서에 ‘西寇’가 거리낌 없이 사납게 굴며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므로 소탕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⁹⁾ 장사성이 말한 西寇는 주원장을 지칭하는데¹⁰⁾ 고려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굳이 이런 언급을 한 이유는 중국 남방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민왕 6년을 시작으로 장사성은 同王 14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고려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장사성측의 빈번한 사절 파견에 비해 고려의 답방은 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그 사이에 흥건적 침입으로 몽진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장사성에 대한 공민왕의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었다.¹¹⁾ 비록

7)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6년 “秋七月乙亥 江浙省丞相遣理問實刺不花來 獻土物” 공민왕 7년에 江浙省丞相 張士誠이 實刺不花를 또 다시 파견하였으므로(『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7년 7월 甲辰), 공민왕 6월에 사신을 파견한 사람은 장사성이 분명하다(김혜원, 앞의 논문, 79쪽).

8) 김혜원, 앞의 논문, 80쪽

9)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7년 7월 甲辰

10) 박원호, 앞의 논문, 200~201쪽

11) 김혜원, 앞의 논문, 80~88쪽

고려는 장사성뿐만 아니라 중국 강남의 여러 군웅과도 교류하였지만,¹²⁾ 장사성 집단과의 교류는 지리적으로나 정보의 수집에서도 이후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 대륙의 혼란은 고려 영토에까지 파급되었다. 홍건적의 침입이 대표적이다. 고려는 공민왕 8년과 10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홍건적이 침입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1차 침입은 毛居敬이 이끄는 4만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시작되었다.¹³⁾ 홍건적은 한 때 개경을 함락하는 등 위세를 떨쳤으나 안우·이방실 등의 승리에 힘입어 적병을 압록강 너머로 물리칠 수 있었다.¹⁴⁾

홍건적의 두 번째 침입은 훨씬 강력하였다. 공민왕 10년(1361) 10월에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 홍건적이 고려로 쳐들어오면서¹⁵⁾ 국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¹⁶⁾ 다행히 다음 해 1월에 20만의 군사를 동원해 홍건적을 물리쳤으며,¹⁷⁾ 4월에는 요양행성으로부터 홍건적의 남은 무리를 평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⁸⁾

한편 고려와 원은 홍건적의 섬멸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였다. 당시에 원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홍건적을 격퇴한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으로 홍건적을 협공하자고 제안하였다.¹⁹⁾ 이에 호응하여 고려도 4만 명의 군사를 징발하고²⁰⁾ 유탁을 西北面紅賊防禦諸軍都統使로 삼아 대비하던 차에 홍건적이 궤멸되면서 군사적 대응도

12) 공민왕대 고려와 한인 군웅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김성준, 앞의 논문과 김혜원, 앞의 논문 참조

13)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8년 12월 丁卯

14)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8년 12월 庚午·同王 9년 2월 癸酉

15)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10년 10월 丁酉

16)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10년 11월 丙寅

17)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1월 甲子

18)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하4월 丙子

19)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8월 乙未

20)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8월 丙申

증지되었다.²¹⁾ 따라서 흥건적의 침입은 고려에 막심한 손실을 입혔지만 여몽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공민왕 5년의 반원개혁으로 소원하고 결그러워졌던 양국관계가 외형상으로는나 상하관계를 되찾고 흥건적이라는 공동의 적에 함께 대응했기²²⁾ 때문이다.

하지만 여몽 양국의 평화로운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공민왕 12년에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폐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려와 명나라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공민왕 18년까지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더구나 공민왕을 대신해 국왕으로 옹립된 덕흥군이 고려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고려왕으로,奇石寶奴를 元子로 삼았다는²³⁾ 소식은 공민왕 12년 5월에 고려에 전달되었다.²⁴⁾ 서북면만호 丁贊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때,²⁵⁾ 피난중인 공민왕은 아직도 개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청주 행궁에 머물고 있었다.²⁶⁾ 고려 조정이 환도조차 못한 상태에서 국왕이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고려

- 21)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9월 庚戌
- 22) 閔賢九, 2004, 「新主(德興君)와 舊君(恭愍王)의 對決-元의 國王廢立 획책에 대한 高麗의 軍事的 대응-」 『高麗政治史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327~328쪽
- 23) 『元史』 권46 本紀 順帝9 至正 22년 “是歲…皇太子嘗坐清寧殿 分布長席 列坐西番高麗諸僧 皇太子曰 李好文先生教我儒書多年 尚不省其義 今聽佛法 一夜即能曉焉 於是頗崇尚佛學 帝以諛廢高麗王伯顏帖木兒 立塔思帖木兒爲王 國人上書言舊王不當廢新王不當立之故 初 皇后奇氏宗族在高麗 恃寵驕橫 伯顏帖木兒屢戒飭不悛 高麗王遂盡殺奇氏族 皇后謂太子曰 爾年已長 何不爲我報讎 時高麗王昆弟有留京師者 乃議立塔思帖木兒爲王 而以奇族子三寶奴爲元子 以將作同知崔帖木兒爲丞相 以兵萬人送之國 至鴨綠江 爲高麗兵所敗 僅餘十七騎還京師”
- 24)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2년 5월 丁亥 및 壬辰
- 25)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12월 癸酉 ·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1년 12월
- 26) 공민왕은 동왕 11년 8월부터 12년 2월까지 청주에 머물렀다(『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8월 壬辰 · 동왕 12년 2월 乙亥).

정치세력의 향배도 공민왕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최유가 1만의 元軍을 이끌고 덕흥군과 함께 압록강을 넘보고 있을 때 평양윤 이인임이 덕흥군을 新主, 공민왕을 舊主로 지칭한²⁷⁾ 것에서도 심상찮은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심지어 在元 고려인 중에는 덕흥군으로부터 僞官을 받은 자도 있었다.²⁸⁾ 흥건적이라는 외부 침략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왕 지위의 존립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²⁹⁾

우여곡절을 거쳐 공민왕은 다음해 3월에 복위되었지만,³⁰⁾ 여몽관계가 순조로울 수는 없었다. 물론 공민왕은 복위 후에도 원 조정이 반란을 진압한 것을 하례하거나³¹⁾ 자신의 개명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는³²⁾ 등 겉으로는 여전히 원나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공민왕대 후반은 국제적 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리고 실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전제되어야 했으므로, 사신의 왕래를 통한 대외교섭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사성을 제압하고 중국 남부의 최강자로 부상한 주원장과의 교섭은 시기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27) 『高麗史節要』 권27, 공민왕 12년 12월 · 『고려사』 권126, 열전 姦臣2 李仁任

28)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2년 5월

29) 이에 대해 원나라 조정에서는 반원정책을 단행한 공민왕이 흥건적 침입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틈을 타서 폐위 조치를 취했으며, 자주권을 회복한 고려를 응징하여 다시 장악하고 군사력을 징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민현구, 앞의 책, 326~332쪽). 한편 이명미는 기황후의 본심은 기씨의 고려왕위 계승에 있었으나, 명분상으로는 형세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기삼보노를 전면에 세우지는 못하고 서자 출신인 덕흥군을 내세우고 ‘원자 기삼보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했다고 하였다(이명미, 2016, 『고려·몽골 관계의 변화와 고려국왕권』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해안, 313~318쪽).

30)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3년 10월 辛丑

31)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5년 3월

32)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5년 8월 壬申

II. 張子溫의 명나라 파견 배경과 역할

공민왕 17년(1368) 8월에 明軍이 大都를 함락하여 원 조정이 北走하면서³³⁾ 중국 대륙의 정세가 급변하였다. 명나라 수군 1만 여척이 通州에 정박하고 북경에 들어오자 順帝가 上都로 도망갔다는 소식은 다음 달인 9월 을묘(19일)에 원나라로부터 돌아온 金之秀에 의해 전해졌다.³⁴⁾ 이틀 후에 공민왕은 신료들에게 명나라와의 통교 방안을 의논하게 하였다.³⁵⁾

명나라와 외교교섭을 타진하는 고려와는 달리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군사 지원을 기대하였다. 8월 9일에 順帝 일행이 中都에 다다른 후 원 조정은 李仲時를 병부상서로 삼아 고려에서 징병하도록 하였으며,³⁶⁾ 上都에 도착한 이후인 9월 19일에는 고려에 조서를 내려 징병을 요구하고 군대가 파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³⁷⁾ 『고려사』에 의하면 11월 丙辰(19일)에 만즈칸[孛子罕]이 고려에 왔으며, 공민왕은 행성에서 조서를 맞이하였다.³⁸⁾ 만즈칸이 9월에 上都에서 출발하여 두 달이나 지나서 도착한 것은 병란으로 인해 驛道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³⁹⁾

하지만 고려는 명나라와의 通交 문제를 논의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만즈칸이 도착하기 전인 11월 丁未(10일)에 이미 예의판서 張子溫을 吳王에게 파견하였다.⁴⁰⁾ 오왕은 곧 朱元璋으로서⁴¹⁾ 이때가 고려와 명 사이의

33) 『明太祖實錄』 권33, 洪武 원년 윤7월 癸亥

34)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9월 乙巳

35)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9월 丁巳

36) 『北巡私記』 424冊 “(至正二十八年八月) 初九日 車駕至中都 以李仲時爲兵部尙書 征兵于高麗”

37) 『북순사기』 424冊 “(至正二十八年九月) 十九日 詔高麗王發兵至上都 聽候調遣”

38)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1월 丙辰

39) 特木勒, 2000, 「北元与高丽的外交: 1368年~1369年」, 『中国边疆史地研究』 36-2, 76쪽

40)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1월 丁未

41) 장자온이 파견된 吳王을 北元 오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주원장이 분명하다는

공식적인 첫 접촉이었다.⁴²⁾ 주원장은 공민왕 17년 정월에 남경에서 황제로 즉위하였으므로,⁴³⁾ 명 태조의 즉위 시점으로부터는 10개월만이지만 실제 고려 조정에서 통교 문제를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는 두 달만에 장자운을 파견한 셈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0월에 고려는 원나라에 춘추절 하례사를 파견하였으나, 요양에 이르러 길이 막혀 되돌아왔다.⁴⁴⁾ 따라서 북원으로 향한 고려의 사신은 원나라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귀환하였고, 원에서 고려로 보낸 사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민왕은 명나라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

기존의 여몽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신속하게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중국의 관세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공민왕 7년에 장사성이 고려에 보낸 문서에 주원장을 지칭하는 ‘西寇’가 등장한다.⁴⁵⁾ 게다가 고려는 장사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 군웅들과도 접촉하였다. 따라서 중국 강남 지역 정치집단의 동향에 대한 정보가 고려에 계속 유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장사성을 토벌하는 전투에 在元 고려인 2만명이 참여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도의 함락 소식을 알려온 김지수같은 고려인이 중국 남부

사실은 박원호, 2005, 「高麗와 朱元璋의 첫 交涉에 관한 小考」, 『북방사논총』 3에 자세하게 논증되어 있다.

42) 공민왕 13년에 이미 주원장 측에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金順子, 1995, 「고려말 대중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 15, 112~113쪽; 김혜원, 앞의 논문, 96~97쪽), 주원장으로 간주한 淮南 朱平章은 주원장이 아니라 淮南行中書省의 평장사로서 張士誠이 패망할 당시 明軍에게 성문을 열어 준 朱平章으로 파악된다(박원호, 앞의 논문, 202~207쪽).

43) 『명태조실록』 권29, 洪武 원년 정월 乙亥

44)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0월 癸酉

45) 공민왕 7년은 장사성과 주원장이 본거지를 蘇州와 南京으로 옮긴 2년 후에 해당되는데, 장사성의 서쪽에 있는 가장 위협적인 적은 주원장이었다(박원호, 앞의 논문, 199~201쪽).

에 다수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 현지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와의 통교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과 통교하기 위해 장자온을 파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원 조정에 대한 입장은 표면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듯했다. 공민왕은 징병하러 고려에 파견된 만즈칸에게 잔치를 베풀고⁴⁶⁾ 이어서 찬성사 이성서를 원나라에 하정사로 파견하는⁴⁷⁾ 등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외교사절의 왕래가 지속되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은 국제 정세를 관망하면서 향후 대외정책의 방향을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⁸⁾ 더군다나 고려는 명나라에서 俛斯를 파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장자온의 使行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장자온의 出使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장자온에 대한 주원장의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주원장은 예법에 의거해 6부와 어사대로 하여금 연회를 베풀게 하였는데, 명나라의 大夫가 본래 어사대의 연회에는 풍악을 쓰지 않았는데 고려 사신을 위해 배려했다며 생색을 냈다. 그러자 장자온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樂은 조화로써 主를 삼는데 이미 화기로 접대 받고 있으니 굳이 樂이 필요하겠나며 응수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들은 주원장은 장자온에게 厚禮를 더하여 고려에 돌려보냈다.⁴⁹⁾

그런데 장자온이 후대를 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내에서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 史臣은 「市井之人」 장자온이 한 마디 말로 타

46)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1월 己未

47)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1월 甲子

48) 윤은숙, 2010, 「고려의 北元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研究』 15, 199쪽

49)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7년 11월 丁未

국에서 존중을 받아 한 때의 명예를 흠쳤다면, 학식 있는 사대부를 사신으로 보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⁵⁰⁾ 물론 이 史論이 고려 신료들의 장자온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명나라와 통교의 물꼬를 트고 온 장자온에게 「一時之譽」를 흠쳤다[盜]는 표현에서 인색함을 넘어 비아냥거림이 느껴진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나라에서는 장자온의 학문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고려에서는 학식도 없는 市井人으로서 간주되었다. 아쉽게도 장자온의 과거급제 여부도 알 수 없고 家系나 혼맥 등 인적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망가 출신이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더더욱 공민왕이 ‘학식도 없는’ 장자온을 특별히 선발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장자온의 정치 활동은 공민왕의 폐위와 덕흥군의 옹립으로 어수선했던 시기부터 나타난다. 장자온은 원나라에 있으면서 덕흥군과 관련된 첩보를 고려에 비밀리에 전달하였다. 공민왕 13년 6월에 이공수·홍순·허강이 원나라에 있었는데, 이자송·김유·황대두·장자온·임박 등과 더불어 서신을 만들어 대지팡이에 넣어 덕흥군과 최유의 근황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副使의 직함을 띠고 있던 장자온도 참여하였다.⁵¹⁾

이후 3개월만인 공민왕 13년 9월에 장자온은 원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원 황제가 공민왕을 복위시키고 최유를 본국으로 압송하게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공민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하사하고 호군에서 上護軍으로 승진시켰다.⁵²⁾ 당시 공민왕은 최유가 덕흥군을 받들고 군사를 이끌고 고려 경내에 들어오는⁵³⁾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서 장자온은 적진의 형세도 보고하고 복위 소식도 가져왔

50)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7년 11월 “史臣曰 子濫市井之人也 尙以一言 見重於他國 以盜一時之譽 則其使於四方者 選用士大夫有學問者 遣之可也”

51)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3년 6월

52)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3년 9월 己巳

53)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3년 춘정월 丙寅

으므로, 공민왕이 포상하였던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 최유가 순군에 수감된 후⁵⁴⁾ 이공수·홍순·이자송에게 공신호를 내려주었는데,⁵⁵⁾ 장자온과 마찬가지로 덕흥군을 따르지 않고 공민왕을 위해 첩보를 보낸 공로를 치하한 것이다.⁵⁶⁾ 공민왕은 폐위에서 복위에 이르는 고난의 시기에 자신을 보필한 신료들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며, 장자온 역시 이 과정에서 공민왕의 신임을 얻어 출세하게 되었다.

이후 장자온은 외교사절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갔다. 공민왕 16년에 장자온은 하남왕에게 보빙사로 파견되었다.⁵⁷⁾ 하남왕 궤궤테무르[擴廓帖木兒]는 원 순제로부터 군사통수권을 부여받고 본거지인 하남에서 실질적인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고려는 궤궤테무르가 원나라에서 軍政의 실권을 장악한 공민왕 14년부터 田祿生과 鄭元庇를 연달아 하남왕에게 파견하였고, 하남왕 역시 ‘人臣者無外交’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려 사신을 접견하였다. 하지만 공민왕 16년에 장자온이 하남왕에게 다녀온 직후에 궤궤테무르가 황태자와의 갈등으로 실각한 사실이 고려에 통보되자, 공민왕은 더 이상 하남왕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고 남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군사실력자인 주원장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다.⁵⁸⁾

이처럼 장자온은 공민왕이 폐위되어 곤경에 빠졌을 때 신속한 정보의 전달로 공을 세운 믿음직한 신료였다. 게다가 북원과 하남 지역을 두루 다녀왔으므로 중국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식견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史論에서 드러나듯이 장자온은 고려 신료들에게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은 ‘사대부’는 아니었지만, 공민왕이 장자온을 사신으로 선발

54)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3년 10월 壬寅

55)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3년 10월 丁未·『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3년 10월

56) 홍순·이자송·김유·황대두가 원에서 귀국하자 곡식을 하사하였는데(『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3년 9월 乙酉), 이들은 덕흥군을 따르지 않고 절개를 지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3년 9월).

57)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6년 5월 戊寅

58) 박원호, 앞의 논문, 213~215쪽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려와 명의 외교관계를 수립되는 과정에서 장자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고려사』에는 주원장이 후대했다는 사실이 전하는 데 비해, 명나라 쪽에는 장자온의 첫 번째 사행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자온의 두 번째 방문에서 대체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장자온은 공민왕 18년 8월에 賀正使가 되어⁵⁹⁾ 그 해 12월에 남경에 도착하였다.⁶⁰⁾ 이 때 명 태조가 奉天殿에서 장자온을 만나 공민왕의 안부를 묻고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였는데, 황제의 겸손한 태도는 전고에 없을 정도였다. 물론 海東의 사신을 극심하게 예우한 것은 고려가 箕子의 유훈이 남아있는 나라인데다가 국왕이 천명을 알고 귀속했기 때문이라는⁶¹⁾ 자만적인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장자온이 처음으로 다녀간 이후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더욱 우대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장자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송별시를 지어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59)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8월 戊辰

60) 『명태조실록』 권47, 洪武 2년 12월 甲戌 “高麗國王王顯遣其臣張子溫等 上表謝封爵 并賀明年正旦 貢方物中宮東宮 皆有獻”

61) 『宋學士文集』 권6, 贈高麗張尙書還國序 “皇上 誕膺寶曆 威服德懷 萬邦黎獻 獻惟帝 臣 時則有若高麗處于海東 遣使者 奉表稱臣 貢獻方物 上嘉其誠 詔錫以璽書金寶 仍爲高麗國王 且錫以王者禮樂 使祀宗廟山川百神於國中 王感 上恩之優渥也 事大之禮 弗懈益虔 今年春 復遣工部尙書張子溫來朝 上御奉天殿見之 侍儀使自殿中 傳宣問王起居 且勞子溫跋涉之故 皇情謙抑 在古所無 卽日錫燕於會同之館 翌日御東朝 命侍臣饗之 自時厥後 中書樞府 暨御史臺 次第而舉酒觴 流行伎樂交作酣暢 和適禮意有加焉 夫以皇明天覆地載 四夷君長孰不重譯來庭 使節之往來 琛賚之充牣 無月無之 而於海東之使 禮遇尤厚者 其故何邪 他國之君長 非不有其土地人民 紐夷俗而蔑禮義 勝其詐力 惟日不足 高麗乃箕子胥餘之邦 上有常尊 下有等褒賞 存先王之遺風焉 正當以中夏視之 未可以外國例言之也 矧今 聖天子在上 雄兵百萬 如雷如霆 有抗之者 無不殞滅 然於守禮之國 必寵綏而懷柔之 唯恐有所不及 而高麗之君 亦知天命所屬 雖在數千里之外 遙瞻天威 僅同咫尺 致使 海東之民 安於田里 而弗知戈甲之警 含哺而嬉鼓腹 而游無異承平之時 是所謂君臣交盡其道者也 不亦美歟”

장자온이 고려로 귀환한 때는 다음 해 6월이었는데,⁶²⁾ 다수의 명나라 사대부들이 시를 지어 송별하였다. 그런데 송별시 서문에 의하면 장자온은 영리하게 응대하고 진퇴에 절도가 있으며 文彩가 훌륭한 인물이었다. 더 나아가 박학다식하고 글을 잘 짓는다고 徐兢이 칭송한 김부식과 김부철 형제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고 추켜세웠다.⁶³⁾ 앞서 『고려사』에 기록된 것처럼 말 한마디 잘해서 출세한 ‘시정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명나라 사대부의 말처럼 장자온의 학문적 역량이 뛰어났을지도 모르지만, 사서나 문집에 이를 뒷받침할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당시 명나라에서 漢語를 할 줄 아는 자를 사신으로 보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므로, 장자온은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아니어도 漢語를 할 수 있으면서 문장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⁶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색이 장자온을 軍機를 관장하는 군센 인물로 묘사한 것으로⁶⁵⁾ 보아 문신보다는 무신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비록 장자온이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나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외교 사절로서의 실무적인 능력은 특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왕대 장자온의 명나라 出使는 이후에도 세 차례 더 있었다. 공민왕 21년 4월에는 탐라 토벌을 요청하기 위해서,⁶⁶⁾ 동왕 22년 11월에는 화약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⁶⁷⁾ 이어 공민왕 23년 9월에는 朝貢路의

62) 『고려사』 권42, 세가 공민왕 19년 6월 甲戌

63) 『宋學士文集』 권6, 贈高麗張尙書還國序 “抑予聞宋之徐兢嘗往其國 其國有禮部尙書金富軾者 與其弟富徹 博學善屬文 而進趨詳雅 兢以紳有華風稱之 今子溫之來也 應對精明進退有度 而文采粲然可觀 似無愧於前二子者 使不賢而能之乎 因其臣之賢 則其國君之賢 益可信矣 子溫之還 大夫士多詩之 予因總脩元史不暇與子溫接 頗樂聞其事 而爲之序云”

64) 정동훈, 2016, 「고려 공민왕대 대중국 사신 인선의 특징」, 『동국사학』 60, 150~151쪽

65) 『牧隱詩藁』 권34, 詩 寄張子溫令公 “避地公猶壯 關門我已衰 還丹扶病勢 節鉞總軍機 忠義須全美 功名要永垂 松軒吾執友 事定早携歸”

66) 『고려사』 권43, 세가 공민왕 21년 4월 壬寅

67)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 22년 11월 乙丑·『고려사절요』 권22, 공민왕 22년 11월

재개를 사례하고 冠服 요청을 위한 사신으로 선발되었으나,⁶⁸⁾ 곧이어 공민왕이 승하하면서⁶⁹⁾ 다시 告訃使가 되어 명나라로 떠났다. 하지만 도중에 明使 살해사건으로 인해 요동에서 도망쳐서 돌아왔다.⁷⁰⁾

이후 거의 10년 동안 장자온의 對明 외교사절로서의 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우왕 11년에 장자온은 사은사로,⁷¹⁾ 동왕 13년에는 冠服 개정에 대한 사은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⁷²⁾ 하지만 貢馬 부실문제로 구금되었다가 결국 남경에서 사망하였다.⁷³⁾

장자온은 공민왕대 후반에 여러 차례 명나라로 파견되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양국의 통교가 시작된 첫 번째 使行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공민왕은 급변하는 대륙 정세에 정통한 데다가 자신에게 충직한 장자온을 명나라와의 통교를 위한 선발 주자로 내세웠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가문적 배경이나 학식보다도 대외교섭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가진 자가 사신으로서 적합하였던 것이다.⁷⁴⁾ 따라서 장자온은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사신이었다.

이와 같은 장자온의 使行은 공민왕대 후반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명분과 형식보다는 실리가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원 간섭기’에는 몽골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사신으로 발탁되기도 하고, 원나라 왕

68)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 23년 9월 甲子

69) 공민왕은 같은 해 9월 甲申(22일)에 홍거하였는데(『고려사』 권44, 세가, 『吏文』 2-9 「金義叛逆都評議使司申」에 의하면 장자온은 김의와 더불어 西京에 이르렀을 때 부음을 들었다. 이에 訃音表文과 請諡表文 등을 가지고 11월에 압록강을 건넜다. 해당 吏文에 대해서는 구범진 역주, 2012, 『이문 역주(상)』, 세창출판사, 191~203쪽 참조.

70) 『고려사』 권133, 열전 우왕 즉위년 11월 己巳·『고려사절요』 권29, 우왕 즉위년 11월

71) 『고려사』 권135, 열전 우왕 11년 10월

72) 『고려사』 권136, 열전 우왕 13년 윤6월·『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3년 윤6월

73) 『고려사』 권137, 열전 우왕 14년 2월 庚申·『고려사절요』 권33, 우왕 14년 2월

74) 이러한 측면에서 공민왕대 중국에 파견된 사신 중에 과거 급제자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이른바 신용휴신이라고 할만한 인물이 거의 없으므로, 공민왕대까지만 해도 유신 집단이 아직 본격적인 정치주체로서 외교에 개입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견해가(정동훈, 앞의 논문, 153~154쪽) 주목된다.

실이나 정치세력과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인물이 사신으로 선호되기도 하였다. 오랜 동안 몽골과 외교관계를 지속해 온 경험은 공민왕대에 여명관계를 개시하는 단계에서도 실리적인 입장에서 사신을 선별하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Ⅲ. 僞斯의 고려 파견 배경과 역할

僞斯는 명에서 고려로 파견된 최초의 사신이였다. 설사는 공민왕 18년(1369) 4월에 고려에 왔지만, 그가 실제 명나라 수도인 金陵에서 출발한 것은 전해 11월로 바닷길이 막히는 바람에 연착하였다.⁷⁵⁾ 공민왕 17년 11월에 장자온은 명으로, 설사는 고려로 출발했으므로 양국의 최초 사절 파견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설사가 고려에 온 목적은 주원장이 황제로 즉위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⁷⁶⁾ 고려는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몽골과 ‘군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원장은 아직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명나라는 고려와 교섭을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사신의 선발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설사가 선택된 이유는 우선 그와 고려와의 인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설손과 설사 형제가 고려와 명에서 分居하였는데 설손 부자가 고려에서 명성이 있어서 설사를 파견했다는 견해가 있다.⁷⁷⁾ 하지만 설사가 파견된 배경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씨 가문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75)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4월 壬辰. 『명태조실록』에는 12월에 파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明太祖實錄』 권37, 洪武 元年 12月 壬辰).

76)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4월 壬辰

77) 鄭紅英, 2012, 「朝鮮初期與明朝的使臣往來問題探析」, 제45권 제2기, 139쪽

설사의 형인 倣遜은⁷⁸⁾ 공민왕 7년에 흥건적을 피해 고려로 귀화하였는데, 공민왕은 端本堂에서 함께 황태자를 시종한 인연이 있어서 설손을 후대하였다.⁷⁹⁾ 비록 설손이 귀화한 지 2년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공민왕은 여전히 설씨 가문을 배려하였다. 설손의 아들인 설장수는 父喪中이었지만 공민왕의 특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⁸⁰⁾ 당시 공민왕은 흥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난이 평정되자 북상하는 도중에 동왕 11년 8월부터 청주에 머물다가⁸¹⁾ 다음해 2월에 청주를 떠났다.⁸²⁾ 설장수는 同王 11년 10월에 급제하였으므로, 그가 응시한 과거는 개경이 아니라 청주에서 시행되었다. 흥언박이 지공거, 유숙이 동지공거였으며, 박실(박의중)·이승인·정도전 등이 동년이였다.⁸³⁾ 설장수의 과거 응시는 아버지의 음덕을 입은 것이지만, 공민왕의 입장에서 원나라에서 대대로 관직을 역임한 설씨 가문의⁸⁴⁾ 일원을 가까이 두는 것이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내 설씨 가문의 입지는 명나라에서 설사가 사신으로 선발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손은 고려에,

78) 설손은 원나라에서 벼슬하고 있을 때 승상 하麻와 의 마찰로 지방관에 진출되었고 하麻가 파직된 후 大都에 돌아온 뒤에도 관직 복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설손 형제의 고려와 명으로의 귀화를 원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좌절의 결과로 파악하기도 한다(백옥경, 2008, 「麗末 鮮初 倣長壽의 政治活動과 現實認識」 『조선시대 사학보』 46, 12~13쪽).

79) 『고려사』 권112, 열전 倣遜. 한편 설장수는 기해년인 공민왕 8년 봄에 개경에 도착하였다(『동문선』 권103, 跋 近思齊逸藁跋).

80) 『고려사』 권112, 열전 倣遜 附 倣長壽

81)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8월 壬辰

82)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2년 2월 乙亥

83) 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絃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486~490쪽

84) 원나라에서의 倣氏 가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桂栖鵬·尙衍斌, 1995, 「高昌倣氏와 明初中朝交往」 『中國邊疆史地研究』 1995年 第2期, 23쪽; 백옥경, 앞의 논문, 8~14쪽; 譚春陽, 2017, 「明初倣氏家族對中朝關係影響研究－以倣斯·倣長壽爲中心－」 延邊大學 碩士學位 論文, 8~12쪽 참조

설사는 명에 각각 귀부해서 양국에서分居했다는 점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사는 명나라에 귀순하기 전에 고려에 머물다 장사성의 휘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설손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子弟를 이끌고 고려에 왔다. 그런데 설손의 문집인 『近思齋逸藁』의 서문에는 아우인 公文과 公素가 나오고,⁸⁵⁾ 설장수가 지은 발문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숙부 簽樞公 公明과 생존중인 尙寶公 公文이 등장한다.⁸⁶⁾ 『근사재일고』 편찬시에⁸⁷⁾ 생존한 설장수의 숙부 공문이 바로 설사였다.⁸⁸⁾ 따라서 설손이 고려에 귀화할 때 설사도 동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陶隱集』에서 사실로 확인된다. 최초의 明使로 고려에 온 설사는 개경에 4월에 도착해 한 달 정도를 체류하였다. 공민왕 18년 5월에 설사가 귀환하면서 鞍馬·衣服의 선물을 사양하자 공민왕은 문신에게 명하여 詩賦를 증정하게 하였다.⁸⁹⁾ 『고려사』에는 설사에게 증정한 문신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문집을 통해 이승인⁹⁰⁾·이인복⁹¹⁾·하을지⁹²⁾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송별시 서문에서 설사의 지난 행적이 드러난다. 즉, 이승인은 예전에 關先生이 요동을 침범하여 설사가 고려로 피난했을 적에 사대부들과 교류하다 떠나게 되

85) 『목은문고』 권7, 近思齋逸稿後序

86) 『동문선』 권103, 跋 近思齋逸藁跋(俛長壽)

87) 이색이 쓴 발문(『동문선』 권102, 跋 思齋逸藁跋)에 의하면 해당 문집은 임자년인 공민왕 21년(1372)에 편찬되었다.

88) 『陶隱集』 권1, 詩 送僕符寶還朝 斯字公文

89)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5월 “乙未 僕斯以二羊享王 丁酉 斯還 王餽鞍馬衣服不受 宰樞贈人參藥物 亦不受 王命文臣 賦詩以贈”

90) 『陶隱集』 권1, 詩 送僕符寶還朝 斯字公文. 『동문선』에는 詩題가 「送僕符寶 斯守○公文」으로 되어 있다(『동문선』 권5, 五言古詩). 한편 해당 시에서 玉衡(渾天儀)이 南陸을 가리킬 때 훈풍이 불어왔다고 한 것을 보면 시기가 여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91) 『동문선』 권10, 五言律詩 送僕符寶還大明

92) 『동문선』 권21, 七言絕句 送僕符寶還朝

어 그리워하였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설사가 일정상 급히 떠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송별시를 짓는다면서 전후사정을 서술하였다.⁹³⁾ 송별시 서문을 지은 이승인은 설장수의 동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설사는 이미 고려에 체류하면서 사대부들과 긴밀하게 교유한 적이 있었으며, 고려의 사대부들로부터도 상당한 명망을 얻었다.

그렇다면 설사는 흥건적의 침입 즈음에 설손과 함께 고려에 귀부했다가 어느 시점에 중국으로 돌아간 것인데, 귀환한 시기와 이후의 행적은 설사가 선발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설장수는 아버지가 죽은 후 숙부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글을 모아 간행하고 韓山李相國 즉 이색에게 서문을 부탁하려 하였는데 숙부들이 西歸하여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⁹⁴⁾ 설손의 사망 시기가 공민왕 9년(1360)이므로,⁹⁵⁾ 설사가 중국으로 돌아간 때는 그 후에 해당한다.

한편 『明太祖實錄』에 의하면 설사는 丙午年(1366)에 故元の 嘉定州知州로서 주원장에게 귀부하여 홍무 원년(1368)에 병부원의랑에 제수되었다.⁹⁶⁾ 장사성의 근거지가 함락될 때 松江府 嘉定州 守臣 王立中等이 徐達의 군대에 항복했는데,⁹⁷⁾ 이때 설사도 주원장에게 귀순한 것으로 과

93) 『목은문고』 권9, 序 送僕符寶使還詩序 “符寶僕公奉璽書禮幣 涉海萬里 來使是邦 以明揚 聖天子柔懷之意 舉國奔走 奉承唯謹 頃者 關賊犯遼東 公實避地于此 士大夫 與之游者敬愛之 故昔之去也思之深 今之來也喜之至 又憂其歸之亟而莫之留也 於是 相與賦詩以贈”

94) 『동문선』 권103, 跋 近思齋逸藁跋(僕長壽) “己亥春 達松京 因錄未忘者 爲二帙 命之曰 近思齋逸藁 凡詩文共七百餘首 自渡鴨江遇歲之間 亦三百餘首 別爲一帙 曰之東錄 及遺世 先叔簽樞公公 今尙寶公公 暨長壽等 議求序于韓山李相國 仍鈔梓以圖不朽之計 議未決而諸叔西歸 孤子力微 事遂中止”

95) 『고려사』 권111, 열전 僕遜

96) 『明太祖實錄』 권132, 洪武 13년 6월 “(甲申) 賜禮部尙書僕斯致仕 車溧陽人 歲丙午 以故元嘉定知州來歸 洪武元年授兵部員外郎 尋擢符寶郎 改尙寶司丞 四年出知泰安州 六年陞知河間府 入爲戶部尙書 出爲山西左參政 召還爲吏部尙書 遷禮部 至是以年老致仕”

97) 『明太祖實錄』 권22, 吳 元年 正月 庚子 “松江府嘉定州守臣王立中等 詣徐達軍降”

약된다.⁹⁸⁾ 따라서 설사는 공민왕 9년(1360)부터 공민왕 15년(1366) 사이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嘉定州의 知州로서 장사성의 휘하에 들어간 것이다.

또 다른 중국 기록에 의하면 설사는 至正 23년(공민왕 12년, 1363)에 知昆山州事였다가 嘉定知州가 되었는데,⁹⁹⁾ 곤산과 가정은 현재 江蘇省에 속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설사가 중국으로 귀환한 시기는 1360년부터 1363년 사이로 좁혀진다. 결국 설사는 형을 따라 고려에 왔지만 2년 만에 형이 사망하였다. 게다가 그들이 고려로 귀부한 원인을 제공했던 흥건적이 대규모로 고려에 침입하였고, 고려 조정은 개경을 떠나 피난지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형의 사망이라는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려의 형편도 설사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를 떠난 설사가 정착한 곳은 다름 아닌 장사성의 근거지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민왕과 장사성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 고려 조정과 장사성은 적대적인 관계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민왕 3년(1354)에 원측에서 高郵城의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한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려는 원군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머지 않아 고려는 한 때 적이었던 장사성과 교류하기에 이르렀다. 원말의 한인 군웅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적 접촉을 시도한 인물이 바로 장사성이었다.

장사성은 공민왕 6년 이래 고려에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였고, 공민왕도 답빙 사신을 보냈다. 설손이 사망한 공민왕 9년 이후와 설사가 知

98) 譚春陽, 앞의 논문, 14~15쪽. 아울러 ‘故元’이라고 한 것은 장사성이 일찍이 元朝에 降付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99) 『嘉慶溧陽縣志』에 의하면 설사는 元末에 父蔭으로 知嘉定州가 되었다. 그런데 『正德姑蘇志』에 高昌人인 僕僖스가 지정 23년에 知昆山州事로 나오는데, 『昆山重修三皇廟記』에 지정 23년 하6월 昆山州知事兼勸農事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僕僖스와 僕斯는 동일 인물로 파악된다(桂栖鵬·尙衍斌, 1995, 「高昌僕氏與明初中朝交往」 『中國邊疆史地研究』 1995年 第2期, 26쪽).

昆山州事로 재임하던 공민왕 12년 사이로 한정하여 보면¹⁰⁰), 장사성은 공민왕 10년¹⁰¹ · 11년¹⁰² · 12년에¹⁰³ 고려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고려가 장사성측에 보낸 답빙 사절에 설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시기에 고려가 답빙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어찌면 장사성의 사절이 귀환할 때 동행하였을 수도 있다. 설사가 어떠한 경로와 목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민왕 9년에서 12년 사이에 장사성 휘하로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한편 설사가 사신으로 선정된 배경을 지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즉, 嘉定은 元代 강남 해운의 기점으로 장사성과 고려의 해상 왕래에서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되었으므로, 설사가 고려의 상세한 정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出使하는 최초의 사신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다.¹⁰⁴ 하지만 설사가 고려의 상황에 익숙했던 원인은 그의 근거지가 고려로 향하는 해상 출구였다는 점보다는 실제 고려에 체류했던 경험이 더 핵심적이다. 설사는 원 관료 출신으로서 중국 북방에서 발생한 홍건적의 흥기를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전란의 와중에 고려로 피난 가서 살았다. 그리고 그의 형인 설손은 공민왕과의 인연으로 고려에서 고위 관작을 받았으며, 설사 자신 역시 고려에 사는 동안 여러 사대부들과 교유하였다.

따라서 설사는 중국과 고려의 정세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명나라에서 설사를 고려에 파견한 배경에는 복원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상황에 대한 남다른 그의 정보력과 인식이 있었다. 그리

100) 공민왕 9년 3월에도 장사성이 사신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보빙 사신이 4월에 보내졌지만(『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9년 3월 丙辰 및 4월 壬申), 이 해는 설손이 사망한 해이므로 설사가 중국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101)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10년 秋7月 壬子

102)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7월 庚戌

103)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2년 4월 壬子

104) 李新峰, 2003, 『明前期赴朝鮮使臣叢考』 『明清論叢』 第4輯, 紫禁城出版社, 92쪽

고 설장수가 공민왕에게 우대받는 관료였다는 점도 당연히 설사를 선발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설사는 상대방인 고려를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내적·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셈이었다.

명 조정의 설사 파견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설사가 귀환한 5월에 고려는 至正 연호 사용을 중지하였으며,¹⁰⁵⁾ 예부상서 洪尙載를 남경에 파견해 명 태조의 등극을 하례하며 上表稱臣하였다.¹⁰⁶⁾ 장자온이 두 번째 명나라에 갔을 때 외국의 사신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환대받은 것도¹⁰⁷⁾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설사는 공민왕 18년 8월에 다시 파견되어¹⁰⁸⁾ 다음 해 5월에 고려에 왔다.¹⁰⁹⁾ 그가 고려를 떠난 때가 공민왕 18년 5월이었으므로 남경에 도착한 시기는 최소한 6월 이후였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사행은 매우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이 때 설사는 공민왕을 책봉하는 조서뿐만 아니라 金印과 大統曆을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설사의 사행 목적이 명나라의 건국을 통보하는 데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양국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명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설사의 이번 사행도 매우 중요하였다.¹¹⁰⁾

105)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5월 辛丑

106)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5월 甲辰. 홍상재 일행은 8월에 남경에 도착하였다(『명태조실록』 권44, 홍무 2년 8월 甲子).

107) 『宋學士文集』 권6, 贈高麗張尙書還國序

108) 『明太祖實錄』 권44, 洪武 2年 8月 丙子

109) 『고려사』 권42, 세가 공민왕 19년 5월 甲寅

110) 이에 대해 설사가 두 번째 파견될 당시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명나라가 진행중인 통일전쟁 중에 고려와 원나라가 연합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통일과정에 내재된 불안정한 요인을 낮추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설사의 사신 파견이 매우 중요했다고 파악한 견해가 있다. 즉, 고려가 신속하게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宗藩關係’를 수립하여 중원의 정통왕조로 섬겨 정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 왕실은 명의 인가를 받아 한반도 내에서의 통치에 대한 합법성과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비록 동북지역에서 원나라의 잔여세력이 통치하였다 해도 명나라 군대의 진공으로 고려왕조에 대한 위협이 크게 감소

이처럼 여명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반면, 고려와 북원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갔다. 공민왕 18년 11월에 원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귀국하는 盧崑을 공민왕이 대장군 송광미를 보내어 살해하였으며,¹¹¹⁾ 급기야 동녕부를 공격하면서 북원과 관계를 단절하였다.¹¹²⁾ 마침내 다음 해인 공민왕 19년 7월에 고려는 비로소 洪武 연호를 시행하였으며,¹¹³⁾ 남경에 姜師贊을 보내 고려국왕을 책봉한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¹¹⁴⁾

이로써 고려와 명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비록 원이 북쪽으로 쫓겨 갔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러한 원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명의 후원이 필요하였고, 명은 완전히 북원을 제압하기 위해 고려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¹¹⁵⁾ 명과의 국교 수립에 적극적인 고려의 입장은 외교문서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명측에서 고려에 보낸 첫 외교문서가 군신관계를 분명히 하는 詔書가 아니라 군신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간의 외교문서로 사용되는 致書式 외교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먼저 奉表稱臣하였다. 그리고 명이 공민왕을 책봉한 이후로 군신관계에 입각한 詔書を 외교문서로 사용하였다.¹¹⁶⁾ 결국 고려와 명나라 모두 우호적

하여 계속 ‘북진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譚春陽, 앞의 논문, 19~21쪽).

111)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12월 ·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8년 12월

112)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12월

113) 『고려사』 권42, 세가 공민왕 19년 秋7月 乙未

114) 『고려사』 권42, 세가 공민왕 19년 秋7月 甲辰

115) 金成俊, 앞의 책, 356쪽. 일찍이 末松保和 역시 고려와 명의 관계가 강제성이 없이 빠르고 순조롭게 성립된 데에는 상호의 욕구와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원의 통치가 느슨해지면서 고려에서 전통적인 慕華思想이 흥기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명에서는 요동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려의 외교적 위치를 깊이 인식하고 고려로부터의 武備를 기대하였다고 하였다(末松保和, 1967,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靑丘史草』 1, 314~316쪽).

116) 정동훈, 2010, 「高麗-明 外交文書 書식의 성립과 배경」 『한국사론』 56, 188~189쪽. 한편 공민왕은 아직 명의 책봉을 받기 이전인 1369년에 몽골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과 일행을 모두 살해하였고, 1373년에 온 사신도 살해하려다 신하들의 만

인 외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이었고, 이러한 양국의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자온과 설사가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사의 使行에는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설손의 문집인 『近思齋逸藁』의 판각과 인출이 공민왕 21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설사는 두 차례의 사행 기간에 『근사재일고』의 편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¹¹⁷⁾ 따라서 공적으로는 외교 사절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으로는 설씨 가문의 숙원 사업인 설손의 문집 편찬에도 참여했다고 판단된다.

설사는 위구르 출신으로서 원의 관료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한인 군웅 중의 하나인 장사성 휘하에 몸을 담았다가 마침내 명에 귀순한 흔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였다. 또한 흥건적으로 인해 중국 북방이 소란스러워졌을 때에는 고려에 머물면서 고려 사대부들과도 교류하였으니, 그야말로 ‘국제인’이라 할 만하다. 공민왕 후반부터 명나라에 파견되어 양국관계의 현안을 조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던 설장수¹¹⁸⁾ 역시 ‘국제적인’ 僕氏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민왕대 후반은 고려·원·명을 아우르는 국제적 인물의¹¹⁹⁾ 외교 활동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류로 그만두었다. 이처럼 명이 1368년 大都를 점령한 이후 공민왕이 몽골과의 관계 단절에는 신속한 반면, ‘尙明’에는 다소 강박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이명미, 앞의 책, 348~352쪽 및 368쪽).

- 117) 설손이 죽은 후에 설장수와 설사·설공소·설공명 등이 문집의 산실을 우려해 『근사재일고』를 편찬하였는데, 흥건적의 침입시 설장수가 소장하고 있던 『근사재일고』가 소실된 후 설사 등이 시문을 증보하여 다시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朴現圭, 1995, 「위그로족 귀화인 僕遜 문집인 《近思齋逸藁》의 발굴과 분석」 『대동한문학』 7, 211쪽).
- 118) 설장수는 공민왕 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사신으로서의 자세한 행적에 대해서는 백옥경, 앞의 논문, 16~20쪽 및 譚春陽, 앞의 논문, 24~29쪽 참조.
- 119) 공민왕 후반에 명 태조의 선물을 가지고 온 孫內侍도 본래 고려 출신의 원나라 환관이었다(『고려사』 권43, 세가 공민왕 21년 5월 癸亥).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인으로서 명나라에 투탁한 인물이 상당수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맺음말

14세기 후반은 이른바 원명교체기에 해당하는 국제정세의 격변기로서, 고려의 외교정책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그 중에서도 공민왕 17년에서 19년 사이는 麗明關係의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여명관계의 초석을 놓는 이 시기에 장자온과 설사는 각각 고려와 명에서 파견된 최초의 사신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공민왕 17년 11월과 18년 8월에 장자온을 명나라로 파견하였는데, 명나라에서 설사를 파견한 시점 역시 거의 같았다. 장자온은 공민왕이 廢位되었을 당시에 원나라에 있으면서 고려국왕으로 책봉된 德興君의 동향을 몰래 고려에 전달하였다. 또한 귀환하여 공민왕의 復位 사실을 보고하면서 더욱 국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또한 하남에서 실력자로 군림하던 괴피테무르에게 사신으로 파견된 경험은 중국의 여러 정치집단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공민왕에 대한 충심과 중국 정세에 밝은 정보력은 명나라가 건국하자마자 장자온을 첫 번째 사신으로 파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명나라에서 장자온이 사신으로서 수행한 임무의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명 태조로부터 받았던 전례 없는 환대로 보아 양국의 국교 수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비록 장자온은 고려 내에서는 ‘시정인’으로 평가절하되었지만, 명나라와 교섭을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공민왕에 대한 신임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

설사는 명에서 고려로 처음 파견된 사신으로서,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려에는 설손·설장수를 비롯한 偈氏들이 공민왕의 우대를 받으면서 정계에서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사는 원나라와 장사성의 뜻에서도 관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따라

서 설사는 당시 동북아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력을 갖춘 인물로서, 특히 고려 사정을 면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적임자였다. 설사의 使行을 계기로 여명관계는 급속히 진전된 반면, 북원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설사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장자온과 설사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인물이었는데, 공민왕대 후반은 고려나 명나라를 막론하고 중국과 한반도의 사정에 밝은 ‘국제인’이 필요한 시기였다. 게다가 아직 ‘전형적인’ 양국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데다가 전망도 불확실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고려와 명나라 모두 대외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려에서는 ‘시정인’ 장자온이 선발될 수 있었으며, 명나라에서는 귀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설사가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高麗史節要』·『明史』·『明太祖實錄』·『陶隱集』·『東文選』·『牧隱文藁』

2. 논문 및 저서

- 金成俊, 1994, 「고려 말의 정국과 원·명관계」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김순자, 1995, 「고려말 대중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 15
- 金惠苑, 1998, 「高麗 恭愍王代 對外政策과 漢人群雄」 『백산학보』 51
- 閔賢九, 2004, 「新主(德興君)와 舊君(恭愍王)의 對決—元の 國王廢立 획책에 대한 高麗의 軍事的 대응—」 『高麗政治史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원호, 2005, 「高麗와 朱元璋의 첫 交涉에 관한 小考」 『북방사논총』 3
- 朴現圭, 1995, 「위그로족 귀화인 倭孫 문집인 <近思齋逸藁>의 발굴과 분석」 『大東漢文學』 7
- 백옥경, 2008, 「麗末 鮮初 倭長壽의 政治活動과 現實認識」 『조선시대사학보』 46
- 윤은숙, 2010, 「고려의 北元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研究』 15
- 이명미, 2016, 「고려·몽골 관계의 변화와 고려국왕권」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해안
- 정동훈, 2013, 「명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위상—홍무 연간 명의 사신 인선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89
- 정동훈, 2016, 「고려 공민왕대 대중국 사신 인선의 특징」 『동국사학』 60

- 末松保和, 1967,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靑丘史草』 1
- 桂栖鵬·尙衍斌, 1995, 「高昌使氏与明初中朝交往」『中国边疆史地研究』
1995年 第2期
- 特木勒, 2000, 「北元与高丽的外交：1368年～1369年」『中国边疆史地研究』
2000年 第2期
- 李新峰, 2003, 「明前期赴朝鲜使臣丛考」『明清论丛』 第4辑, 紫禁城出版社
- 郑红英, 2012, 「朝鮮初期与明朝的使臣往來問題探析」 제45권 제2기
- 譚春阳, 2017, 「明初使氏家族对中朝关系影响研究－以使斯·使長壽为中心－」 延边大学 碩士學位 論文

Abstract

Goryo-Ming Relations (麗明關係) and Jang Jaon and Seolsa in the Late Period of King Gongmin's Rule

Kim, Nan-ok

The late 14th century was a turbulent period during which the Ming Dynasty replaced the Yuan Dynasty. This also led Goryo to inevitably change its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Goryo-Ming relations (麗明關係) were formed during the late period of King Gongmin's rule, and thus the missions of Jang Jaon and Seolsa were of great importance as the first envoys dispatched by each country during the two countries' entry into friendly relations (通交). Goryo sent Jang Jaon to Ming in the 17th and 18th years of King Gongmin's reign, which were similar times to when Ming sent Seolsa to Goryo.

When King Gongmin was dethroned (廢位), Jang Jaon stayed in Yuan and secretly delivered the movements of Deokheunggun (德興君) to Goryo, who was invested as the king of Goryo. Moreover, as he returned to Goryo and reported on the restoration of King Gongmin, he gained greater trust from the king. Later, Jang Jaon was sent as an envoy to Koke-Temur (擴廓帖木兒) in Henan (河南), China, and built his experience as a diplomatic mission. His loyalty to King Gongmin and ability to obtain intelligence on China's situations became an important background for becoming the first envoy to Ming. Though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specific activities that Jang Jaon performed

as an envoy in Ming, he must have played a highly positive role in establishing the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given the unprecedented warm welcome that he received from the Hongwu Emperor of Ming. Though Jang Jaon was underestimated as “a man on the street (市井人)” within Goryo, he was ideally qualifi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Ming.

As the first envoy sent from Ming to Goryo, Seolsa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In Goryo, officials of the family name “Seol” (溥氏), including Seol Son and Seol Jangsu, were playing active parts in politics with King Gongmin's preferential treatment. In addition, Seolsa had served in government posts in Yuan and Zhang Shicheng's kingdom of Wu (吳). Therefore, Seolsa had experiences and the ability to collect intelligence with which to accurately identify Northeast Asia's circumstances, and he was particularly eligible to closely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Goryo. While Goryo-Ming relations rapidly advanced with Seolsa's diplomatic visit (使行) as a momentum, Goryo's relations with the Northern Yuan were gradually severed. This may signify that Seolsa had fully served his role.

Jang Jaon and Seolsa directly experienced changes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cross their national borders, and the latter part of King Gogmin's reign was in need of “international figures” that were well-informed about the situations of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origin of Goryo or Ming. In addition, while the two countries' “typical” relations were not yet established, both countries required envoys who could accurately identify changes in the overseas environment and actively react to them. In this context, Jang Jaon, “the man on the street” could be appointed in Goryo, and in Ming, Seolsa who had recently defected could be sent

사학연구 제131호(2018. 9)

as an envoy to Goryo.

Keywords : Foreign relations during King Gongmin's rule, transfer of power between Yuan and Ming (元明), Jang Jaon (張子濫), Seolsa (契斯), background for the selection of envoys during King Gongmin's rule, friendly relations of Goryo and Ming